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2022 July
Vol. 604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발길 머무는 골목길
영화 돌보기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Contents



발행일 2022년 7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04
발길 머무는 골목길
 피란수도의 심장과 머리를 거닐다
 ‘임시수도기념거리’



08
부산&근교 추천 여행지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를 날려줄
 부산&근교 추천 여행지



12
영화 돋보기
 휴가를 떠나기 전,
 여행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추천



16
여름 추천 맛집
 한 여름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동굴 속
 아귀&해물찜 이색 맛집 ‘용꿈’



18
가객의 인문학
 ‘인싸’ 말고 ‘마싸’ 여행
 유리상자 <제주도 푸른 밤>을 들으며

ZOOM in BCCI

20
Story of 캡틴 장



22
Together with 2030
 역대 주요 엑스포 탐구 생활

24
기업포커스
 (주)효산개발



28
Look at Me
 스타트업 ‘주미스터멘션’



트렌드 TALK

32
Do You Know MZ?
 MZ세대 문화 트렌드

34
 들어봤어? MBTI 16가지 성격유형 검사

경제 KEYWORD

36
 고객 경험 혁신으로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준비하라

38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워케이션’ 도시, 부산!
 일과 휴가를 함께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뜬다



40
BCCI 인포
 민선 8기 부산광역시 역점 추진 사업

42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4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48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핸드폰을 통해
 부산상공회의Show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을 거닐다 4편

피란수도의 심장과 머리를 거닐다

※ 거닐다(걷다+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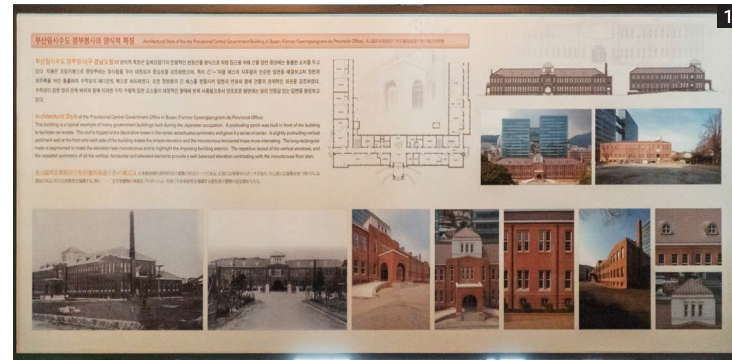
글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피란수도의 심장은 어디일까? 피란수도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사람들에게 피란수도의 심장이라니? 그렇다면 혹시 임시수도라는 표현은 들어봤을까? 피란수도와 그 심장과 머리를 향해 걸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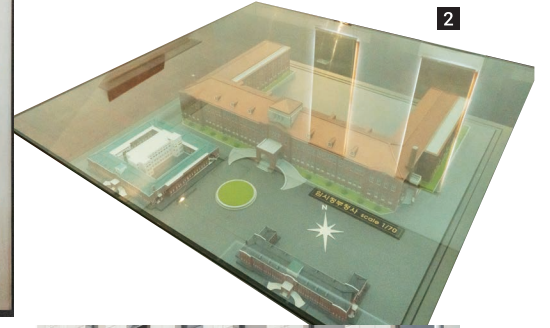
피란수도의 심장 임시수도 정부청사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세계유산 등재의 전전 단계인 잠정 목록에 등재된 9개의 피란수도 부산 유산 중 하나로 현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석당박물관 건물에 말한다. 건물은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는 직사각형 모양에, 똑같은 간격의 수직 창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좌우로 나열되어 있다. 거기에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의 특징인 포치(PORCH)라 불리는 중앙 현관 부분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정면은 계단이고 양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나 있다. 지붕은 짙은 갈색에 비스듬한 삼각 모양으로 몇 개의 작은 창문을 품고 하늘과 경계를 이루며 건물의 양쪽 끝에는 굴뚝이 한 개씩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다.

과거 임시수도 정부청사(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1_ 석당박물관 내 임시수도 정부청사 관련 자료
2_ 석당박물관 내 임시수도 정부청사 모형
3_ 부산전차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

석당박물관은 1923년 병원 건물로 신축을 발표했다가 1925년 4월 경남도청으로 준공된 건물로 곧 100주년을 맞이하는 근대 건축물이자 등록문화재 41호이다. 해방 이후에도 경남도청으로 사용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피란수도가 되었을 때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차출되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7개의 중앙부처와 경남도청이 자리를 잡았다. 전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친 피란 국경 업무가 처리되었던 핵심 시설로 피란수도의 심장이 이곳이었다. 박물관 3층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 시절 건물에 관해 설명하는 그림과 사진, 모형을 통한 건축양식의 소개, 당시 전국의 도청 건물, 벽돌을 쌓았던 방식 등 다양한 부재에 대한 것들이 전시되어있다. 외부에 다시 나와 붉은 벽돌들을 눈으로 손으로 훑어본다. 식민 통치의 중요한 기구로 태어나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겠지만 피란수도의 심장이 된 순간부터 대한민국과 피란민들을 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마운 건물이다.

피란민과 부산시민의 발이 되어준 부산전차

법학대학원 옆길을 따라 임시수도기념거리로 향한다. 법학대학원 뒤에는 부산전차가 전시되어 있는데 많이 아픈 모양이다. 한때 젊은 시절에는 피란수도의 발이 되어 부산 사람들을 참 많이도 태우고 다녔지만 젊고 썩썩한 자동차들에 밀려 늙고 병든 전차는 부민사거리가 내려다보는 장소, 자신이 늘 다니던 그 길을 바라보며 멈춰버렸고 이제는 병이든 채로 천막과 펜스 뒤 수술대에 누워있다. 부산의 전차는 1915년부터 68년까지 부산을 누볐다. 한 노선은 구덕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서면을 지나 온천장으로 갔고 한 노선은 서면으로 가지 않고 목도(영도)로 향했다. 처음 전차를 본 사람들은 전깃불을 잡아먹는 전기도깨비라 부르기도 했고 쇠당나귀라 부르기도 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운행 횟수와 정류장도 늘어나게 되었고 피란수도 시절에도 멈추지 않는 피란민들의 발이자 부산시민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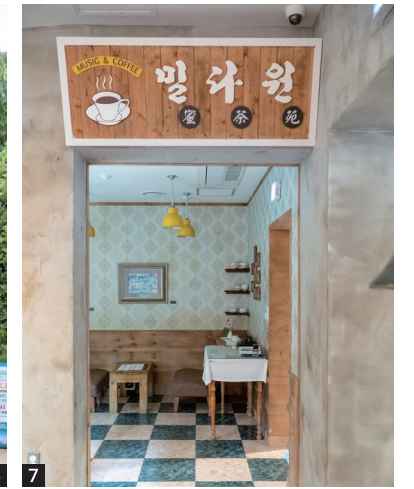
발이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복원 수리 중인 전차는 1952년 미국에서 원조해준 전차로 피란수도를 실제 달렸던 전차이다. 미국의 신시내티 기차 주식회사에서 만들고 원조로 받은 미국전차인 탓에 처음 미국전차를 타 본 사람들은 손잡이가 높아 놀라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피란수도의 머리 임시수도기념관

부산전차 맞은편 임시수도기념거리로 나르면 길의 양쪽에는 태극기들이 나부끼고 집들의 벽에는 피란시절의 다양한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 열심히 ‘쪽자’를 하고 있는 작은 아이의 조형물이 정겹다. 임시수도기념거리의 끝은 계단이다. 계단 위 작은 나무화단에는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너무나도 고마운 전투참전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의 국기가 보이고 퍼즐 같은 임시수도 기념관의 축대가 나타난다. 임시수도기념관은 크게 대통령 관저와 자료실 건물 두 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피란수도 대통령 관저다. 대통령 관저 건물은 1926년 경남도청의 도지사 관사로 지어진 건물로 근대 건축물이자 사적 546호이며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가 된 피란수도의 머리이다. 들어가면 오른쪽 응접실 벽난로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대통령관저 시절 이승만 대통령 내외를 위해 만든 것이라 한다.



1_ 임시수도기념거리에 있는 벽화
2_ 임시수도기념관 안내도



5_ 과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임시수도기념관 건물
6_ 임시수도기념관 내부 이승만 대통령의 밀랍 인형
7_ 임시수도기념관 자료실 밀다원 다방 재현 모습

피란수도 부산의 삶을 돌아보며

대통령관저 뒤 자료실에 들어서면 아크릴로 된 피란민 형상에서 눈물이 팽 돌다 피란 판잣집 모형에서 결국 눈물이 난다. 다리조차 뻗지 못했을 작은 판잣집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느끼게 된다. 옆방은 피란 학교와 꿀꿀이죽과 피란시절 부산에서 탄생한 밀면에 관해 소개중이다. 이외에도 피란예술인들이 모였던 다방 밀다원의 스토리까지 하나도 빠트릴 수 없는 ‘피란수도 부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피란수도 부산 유산 9개 중 겨우 2개를 다루었지만, 오늘도 긴 여정이었다. 밀다원 쇼파에 잠시 몸을 기댄다. 나도 모르게 티치를 한 테이블에서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가 흘러나온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그 많았던 피란 금순이 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 부산의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의 버팀목으로 살아주신 금순이들이 보고 싶다. 🇰🇷



임시수도기념관 자료실 피란 판잣집의 모습



3_ 태극기가 나부끼는 임시수도기념거리 모습
4_ 임시수도기념거리 안내석

그 옆 작은 방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밀랍 인형이 있다. 이곳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울 이화장 서재 사진을 토대로 재현한 공간이다. 이외에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묵었던 내실, 피란민의 생활상을 모형으로 표현한 방이 있고 주방과 식당, 욕실이 재현되어 있으며, 특히 화장실의 청화 백자로 된 변기가 아주 인상적이다. 내부 통로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 옆으로 7명 이상 동시 관람 금지라 쓰여있다. 100년이 다 된 건물이니 당연한 문구다. 계단은 현관 옆의 중앙계단과 내부에서 연결되는 작은 계단이 있는데 주인의 동선과 외부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설계된 형식으로 옛날 일본의 고급주택을 연상케 한다. 현재 2층은 텅 빈 상태고 영상실에서는 피란수도 시절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를 날려줄

부산&근교 추천 여행지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뜨거운 여름이 다시 찾아왔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는 요즘 어느 해보다 진한 여름휴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떠나 잠시나마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뜨거운 여름에 어울리는 바다부터 초록으로 가득한 계곡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강변,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가득한 수목원까지 부산 근교의 여행지에서 어느 해보다 신나는 여름을 보내보자.

울산 나사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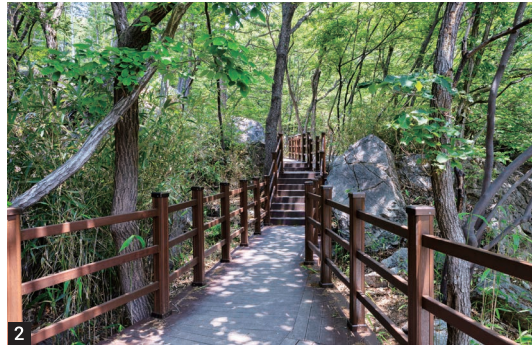
부산 사람들에게 바다만큼 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래서 인지 부산 근교에서 낯선 바다를 찾기로 한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렵다.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여러 해변 중에 조용하고 한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바다를 꼽으라면 울산 서생에 위치한 나사해수욕장이 아닐까 싶다. 한적한 어촌마을인 나사리는 예로부터 질 좋은 미역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다. 마을 앞에 고운 모래사장을 가진 해변이 있는데 여기가 나사해수욕장이다. 주변 사람들 위주로 찾는 작은 해수욕장이라 번잡함은 전혀 없다. 아담한 백사장엔 입자가 곱고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는 육각 모래가 가득하다. 해수욕장 앞으로 방파제가 길게 드리워져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바닷물이 어찌나 맑고 투명한지 자연스레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게 된다. 해수욕장 한편에는 작은 포구가 있고 고깃배들도 줄지어 정박해 있다. 오래된 집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마을 골목은 알록달록한 벽화로 멋을 냈다. 방파제 끝에 서 있는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한 두 개의 등대도 볼거리다. 해수욕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자.



1, 2, 3_ 울산 나사해수욕장

김해 대청계곡

김해와 창원 사이에 우뚝 솟은 불모산에 깊은 계곡이 있다. 부산 사람들에게겐 낯선 ‘대청계곡’이다. 계곡은 깊지만, 접근은 쉽다. 차도에서 백여 미터만 걸으면 금세 울창한 숲이 나타나고 계곡물이 흐른다. 불모산 용지봉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은 매우 시원하며,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협곡 사이로 서늘한 바람도 끊임 없이 불어온다. 계곡을 따라 나무데크로 된 산책로가 장유사까지 1km 이상 이어진다. 최근에 완성된 대청계곡 누리길이다. 계곡의 풍광을 즐기며 느긋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달아난다. 대청계곡 입구에 최근 문을 연 용지봉자연휴양림도 볼거리다.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도 휴양림 속에 있으면 깊은 산 속에 있는 기분이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으니 하루쯤 쉬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1, 2_ 김해 대청계곡



3, 4, 5_ 하동 송림공원
6, 7_ 고성 만화방초

고성 만화방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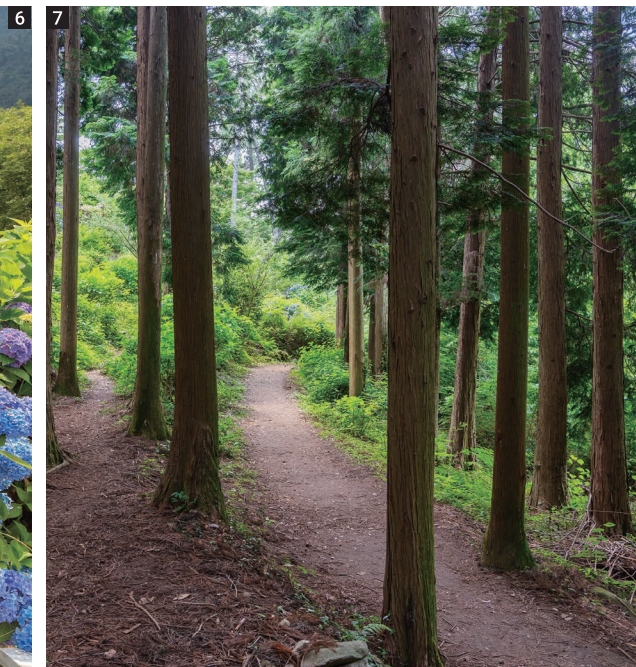
경남 통영과 사천 사이에 위치한 고성에 작은 수목원이 있다. 이름은 ‘만화방초’로 편백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수목을 가꾸고 있는데 특히 6월 말부터 7월 초여름에는 대표적인 여름 꽃인 수국이 한가득 피어나 눈길을 끈다. 한 장소에서 이토록 많고 다양한 수국을 보기도 쉽지 않다. 수국이 피는 시기에는 수국축제를 여는데 예쁜 포토존이 많아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만화방초는 경상남도 민간정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정원도 갖췄다. 작은 연못과 나무, 수국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근사한 풍경을 연출한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주제의 숲과 정원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편백나무 숲이 아름답다. 제법 길게 조성된 수목원이라 여름엔 땀캐나 흘러야 하지만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금방 땀을 식혀준다. 무더위를 이길 자신이 없다면 비가 내리는 날 찾아가자.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수국의 진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3

하동 송림공원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위치한 하동은 산과 강, 바다를 모두 품고 있다. 햇살에 부서지는 새하얀 모래톱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은 언제 봐도 그리운 고향의 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섬진강을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하동송림이다. 흔한 소나무가 아니다. 무려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된 귀하신 몸이다. 빼곡하게 들어찬 소나무와 하얀 모래톱, 느릿느릿 흘러가는 강물이 어우러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을 만든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걸어도 좋고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아도 좋다. 드넓은 백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재첩도 잡으며 온 가족이 여름을 즐겨 봐도 좋다. 하동송림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장면들이다. 이왕 우리나라 차 시베지인 하동까지 왔으니 곳곳에 있는 다원들에 방문하여 녹차밭 풍경도 보고 구수한 녹차도 한 잔 마셔보자.



6

7

휴가를 떠나기 전, 여행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추천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시스트·영화평론가



개봉 2013. 12. 31.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모험, 드라마, 판타지
국가 미국
러닝타임 114분
배급 글워

상상을 넘어 현실로 향하는 여행, <월터의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

교통체증을 견디며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반복된다. 어쩌면 가족을 건사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수년, 아니 수십 년간 여행은커녕 쉽조차 미루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행과 쉬, 모험과 도전은 항상 다음으로 미뤄둔다. 그런 우리에게 벤 스틸러 감독의 <월터의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험이 오히려 오늘 나의 삶을 더욱 긍정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별안간 시작된 여행

주인공 월터는 16년째 매거진 「LIFE」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필름현상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평범한 외모에 내성적인 성격의 그는 조용한 직장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는다. 회사가 인수되어 조직개편, 정리해고, 심지어 70년 넘도록 명성을 이어온 라이프지의 폐간이 검토된다는 소문이다. 새로 온 대표이사는 매거진의 마지막 호 발간을 지시



※ 사진출처: 유니콘텐츠

하며, 월터에게 유명 사진가 손 오코넬이 최근 촬영한 필름롤의 25번째 사진을 마지막 호 표지사진으로 현상할 것을 주문한다. 그런데 그에게 배달된 필름에는 이 25번째 사진이 없다.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대표이사의 으름장에 월터는 전 세계를 누비며 사진 촬영을 하는 손 오코넬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다. 여행은 그렇게 별안간 시작된다.

세상을 바라보라

핸드폰도 없고, 거주지도 불분명하며, 세계의 오지 어딘가에서 촬영하는 사진가를 찾는 여정이 호락호락할 리 없다. 사실 월터는 상상으로 가득한 인물이다. 상상 속에서 그는 도시의 영웅이 되기도, 멋진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그런 그가 이제 상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은 모험의 세계, 진짜 경험을 맛닥뜨린다. 술 취한 기장이 운전하는 헬리콥터를 타고, 그린란드의 김푸른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아이슬란드의 화산지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전쟁 위험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 눈 덮인 히말라야를 오르기도 한다. 마흔이 넘도록 소심한 직장인으로, 모험 비슷한 특별한 경험이라곤 해본 적 없는 월터의 인생에서 이 여정은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라. 위험한 것과 벽을 넘어서, 더 가까이에 있는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라” 유명한



라이프지의 모토다. 영화 속에는 사진가 오코넬이 월터에게 선물한 지갑에 이 문장을 새겨 넣었다. 기껏해야 몇 센티미터짜리 필름으로 세상을 접해온 그에게 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라는 메시지일까.

나를 위해 머무르는 순간

이 영화에는 결정적인 순간, 행동을 멈추는 두 개의 장면이 있다. 오코넬과 월터는 히말라야의 유명이라 불리는 눈표범의 등장을 마주한다. 표범이 뷰파인더 속으로 들어 오기만을 기다려왔지만, 그 순간 오코넬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지 않는다. 그는 그 순간, 오직 자신을 위해 행동을 멈추고 온전히 세상을 느낀다. 월터는 다이내믹한 여정의 끝에서 오코넬의 멈춤의 순간을 통해 세계를 진정으로 느끼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월터는 해고되고, 우여곡절 끝에 찾은 25번째 사진은 라이프지의 마지막 표지로 실린다. 거리에서 마지막 호를 발견한 월터는 곧바로 잡지를 사지 않고 잠시 멈춘다. 특별한 경험과 잊지 못할 순간은 세계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 가까이, 지금의 이 순간에도 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 발견해야 할 것은 역설적으로 오늘, 여기서다.



개봉 2014. 06. 12.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45분
 배급 인벤트 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돌아보는 여행, <경주>

과거를 회상하며 시작되는 여행도 있다. 중국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최현은 오랜 벗의 사망 소식에 입국한다. 7년 전 함께한 여행에서 자신이 찍어준 사진이 장례식 영정사진으로 놓인 것을 본 뒤, 그는 벗과 여행했던 경주를 다시 가보기로 한다. 장률 감독의 <경주>는 과거를 추억하며 경주를 여행하는 남자의 1박 2일 여정을 따르는 영화다.

과거를 떠올리며

과거를 떠올리며 혼자 하는 여행은 낭만적이다. 물론 지인의 죽음이 발단이기에 상실과 애도의 마음이 크겠지만, 좋았던 한때를 떠올리며 그때의 그 장소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주는 정서가 있다. 최현은 망자가 된 지인과 함께 갔던 찻집의 차 맛과 벽에 그려져 있던 춘화, 그와 술을 마시고 취해 걸었던 냇가의 물소리를 회상한다. 또 한때 연애를 했던 대학 후배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렇게 경주의 보문호수, 대릉원, 그리고 오래된 거리를 걷는다. 그러나 다시 찾은 찻집은 주인도 바뀌고 춘화도 사라졌다. 오랜만에 만난 옛 연인은 쌀쌀맞은 태도로 그를 대한다. 찻집 주인 윤희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의심하며 철저히 이방인으로 대한다.

반복되는 죽음의 모티브

<경주>는 죽음의 모티브가 반복되는 영화다. 최현의 여행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는 벗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 경주에 왔다. 경주에서 재회한 옛 연인은 과거 임신과 낙태 사실을 고백한다. 찻집 주인 윤희는 남편과 사별했으며, 그의 죽음 이후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말한다. 그뿐 아니다.

※ 사진출처: 롤필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모녀의 동반 자살 뉴스, 꿈처럼 목격하게 되는 젊은이들의 오토바이 사망 사고 등 영화는 반복해서 죽음을 상기시킨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여행지가 경주다. 종교와 역사 유적지, 과거의 빛나던 문화와 여전히 잘 보존된 유려한 능으로 대표되는 경주는 오늘이 아닌 과거가 지배하는 도시, 어쩌면 망자들의 도시다. 영화 속 최현의 여행길과 윤희의 삶의 공간 곳곳에 능이 있다. 윤희는 경주를 “항상 능을 보며 살아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다. 능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그녀의 표현은 <경주>의 주제를 함축한다. 삶의 가까이에 있는 죽음, 삶과 죽음의 공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삶을 향한 긍정

우리는 무료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종종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진정 나의 일상이 소중하게 환기되는 순간은 다름 아닌 죽음을 지각할 때이다. 내일 나의 죽음을 떠올릴 때 오늘의 일부 일초는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순간이 된다. 그렇기에 죽음이 상기되는 경주는 망자의 도시가 아니라 빛나는 삶의 도시다. 영화는 마지막까지 최현을 따르는 알 수 없는 시선과 찻집 너머에서 울리는 풍경소리로 죽음의 감각을 환기한다. 삶과 죽음의 공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여행하는 이방인을 그린 <경주>는 그렇기에 오히려 삶을 긍정하는 영화다. 최현이 다시 중국의 아내에게 돌아가듯, 우리도 여행의 끝에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



한 여름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동굴 속 아귀&해물찜 이색 맛집 ‘용꿈’

“꿈에 용이 나왔어... 그래서 식당 이름이 ‘용꿈’이야!” 식당 내부 동굴 입구 쪽에 보면 전시되어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문구다. 용꿈은 할아버지, 삼촌, 손녀 3대째 한 자리에서 50여 년간의 역사를 간직한 범일동 로컬 맛집이다.

범일동 일대 시민들의 추억이 함께하는 곳

‘용꿈’은 앞서 설명했듯이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식당으로 1970년대 부터 운영되어왔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찜 전문점이 아닌 전통 주점이었다.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1970~80년대 삼화고무를 비롯한 주변 기업 근로자들이 퇴근 후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으며, 보림극장, 삼성극장, 삼일극장 등 극장에 연예인들이 공연하러 오면 꼭 찾는 단골집이었다고 한다. 사장님 역시 어릴 적 할아버지 가게에서 연예인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식당 속에 ‘동굴’이 있다.

용꿈 식당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장소와 인테리어의 생김새가 다른 식당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가게에 들어서면 널찍한 간격으로 테이블들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 말로만 들던 동굴이 펼쳐진다. 사장님에 말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 일제 시대 일본의 무기고로 사용되었던 장소로 할아버지가 최초로 이곳을 샀을 때는 동굴이 약 10m가량 파여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안쪽까지 약 90m가 되는 동굴을 더 파서 가게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동굴이 지금은 범일동 일대의 명물이 되어 사람들이 찾고, SNS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는 곳이 되었다.



부산 동구 범곡로 19 용꿈식당



용꿈 가게 입구



1, 2_ 용꿈 동굴 내부
3_ 용꿈 동굴 내부 용 조각상



4_ 용꿈 아귀&해물 섞어찜과 볶음밥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동굴

용꿈 가게는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온도는 17~19도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사계절 동안 냉·난방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다. 아울러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미지의 동굴에 탐험을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동굴 한쪽에 이 가게의 상징인 ‘용’ 조각상이 있어서 일 것이다. 이 용 조각상은 50여 년 전 사장님의 할아버지께서 동굴을 파면서 자게로 직접 만든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를 하며 계속해서 전시하고 있다.

맛있게 매운 아귀찜과 해물찜

과거에는 전통주점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10여 년 전부터 아귀찜과 해물찜 전문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장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자갈치 시장에 방문하여 당일 판매할 싱싱한 아귀와 해물을 구매하고 부전시장에서 야채 등 찬거리를 구입하여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한다고 하신다. 메뉴판에 ‘ALL SPICY’라고 적혀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맛있게 매운맛을 추구하며,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맵기도 조절해준다고 한다.

고객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식당

사장님은 용꿈 식당은 고객들이 방문하면 동굴이라는 새로운 볼거리를 통해 재밌는 기억을 선사하는 곳이라고 표현한다. 아울러 고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테이블이 20개 정도 있었는데, 고객들이 번잡하게 식사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도 8개로 줄였으며, 8명 이상 단체 손님은 예약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매일 아침 사오는 싱싱한 아귀와 해물들을 대접하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손님들과 함께하는 식당으로 계속해서 영업해 갈 것이라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용꿈 김진영 사장님

‘인싸’ 말고 ‘마싸’ 여행

유리상자 <제주도 푸른 밤>을 들으며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여행은 어렵다.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행을 다녀오면 인생의 비밀 하나 정도는 들춰져야 할 것 같고, 적어도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서사 하나는 건져야 할 것 같다. 피곤만 하고 금방 잊힐 여행이라면, 돈은 차치하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 충전 잘 되지 않는 배터리 같이 변해 가는 몸도 문제다. 중년 이후엔 비효율적 몸을 현명하게 잘 배분해 써야 한다.

또 다른 여행 풍속도가 있다. 여행과 SNS의 콜라보다. ‘나’를 전시하는 SNS가 다채로운 이야기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행이 필수다. 늘 같은 공간을 맴돌면서, 비슷한 음식을 먹고, 그것만 SNS에 올리면 조회수나 ‘좋아요’가 늘 리 없다.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남들만큼은 돼야 한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행을 가는 것 같다. SNS가 그걸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여 준다.

여행 한 번 못하고 매일 집밥만 연일 SNS에 올려대는 것은 ‘아싸’(outsider)나 하는 거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19 이후 ‘보복 여행’으로 호텔과 공항이 붐빈다고 하는데, 그 대열에 동참해야 ‘인싸’(insider)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여행과 SNS가 결합 되면 인싸로 등극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 묵는지, 이 호텔은 어떤 모습인지 ‘러브 하우스 BGM’도 입으로 흥얼거리며 랜선 소개도 해야 한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여행지에서 무엇을 쇼핑하는지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이렇게 하면, 여행의 인정투쟁에서 승자가 된다.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 없이 여행해야 한다면 어떨까? ‘유리상자’의 <제주도 푸른 밤> 가사처럼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여행해야 한다면? 상상을 위해 밸런스 게임 한번 해 보자. 드디어 주말을 끼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얻어냈다. 이때 둘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스마트폰 없이 여행 가는 것 vs 스마트폰 종일 쥐고 집에서 뒹구는 것” 전자는 답답하고, 후자는 억울하다.

역시 여행엔 스마트폰이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열심히 셀카를 찍다 보면, 결국 ‘나는 나’일 뿐이다. 여행의 의미를 힘주어 말하자면, 여행은 낮은 나를 문득 느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른바 ‘갓성비’, ‘갓심비’를 뽑는 것일 터인데, SNS에 멋진 나의 ‘이미지’만 올리다 보면, 나는 나의 이미지를 위해 복무하는 셈이 된다. 인싸가 되고자 여행하고 SNS에 열심히 중계했는데, 결국 내 인생에서 나는 소외돼 버리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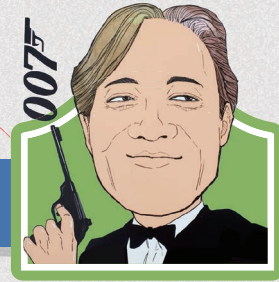
SNS 중계는 내가 놓인 그 상황에, 그 장소에 몰입하지 못하게 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여행은 일상의 전쟁에서 함께 분투하느라 소원했던 그(녀)를 다시 보는 일이 아닐까. “떠나오 돌이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른 밤 그 별 아래” 함께 누워 보는 일이 아닐까.

여행할 때는 ‘여행자’여야 한다. 철학자 들뢰즈가 말한 유목민 ‘노마드’(nomad)처럼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자는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다. 인싸 vs 아싸의 이분법의 폐쇄 공간 안에 ‘여행자’는 없다. 이 이분법에 균열을 내는 것이 요즘 Z세대에게 등장했다는 ‘마싸’(My Sider의 줄임말)다. 말 그대로 마싸는 자신에게 충실하다. ‘남들처럼’에서 자유롭다. 여행지에서는 SNS도 임시 휴정이다. 소통은 SNS 친구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 동행과 하는 거다.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푸른 밤 그 별 아래” 누워 보는 거다.

‘마싸’라는 단어는 신조어지만, 전혀 새로운 신생 캐릭터는 아니다. 우리 주변엔 이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만 자기 일에 몰입하고, 타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됨 그 자체에 집중하는 캐릭터가 있다. 일설에는, 개그맨 유재석을 ‘마싸’의 범주에 넣기도 하더라. 사실, 온갖 플렉스(Flex)를 일삼으며 유튜브나 SNS에서 자기 과시하는 화려한 인플루언서보다 SNS를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집중하는 유재석 같은 이와 여행을 더 가고 싶지 않은가.

나는 올여름 여행계획이 없다. 여행을 안 갈 생각이어서가 아니라, 여행은 계획 없이 갑자기 떠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정말로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정말로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모든 걸 훌훌 털어 버리고” 어딘가에서 유목민처럼 떠돌게 되리라. 외로움과 무력감이 여행 시작의 필수 조건이다. 올여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오히려 기대하는 이유다. 🌐

캡틴장의 새로운 캐릭터!
"제임스본드 같은 멋진 벨"



by 웹툰작가 배민기

Story of 캡틴 장

#캡틴장, 워라벨이 뭐예요?

사무실이 아주
깔끔하이 보기 좋습니데이~



핀테크 강소기업 공유 오피스 S-SPACE 방문
(2022. 6. 8.)

카하~
이 소나무 마음에
딱 드네요^^



윤상용 화백 전시전
(2022. 6. 8.)

청년 여러분이
부산의 희망입니더~!



KNN 청년희망 캠페인 광고 촬영
(2022. 6. 8.)

불거리 많다고
소문 듣고 왔습니더~



부산콘텐츠마켓 개막식 참가
(2022. 6. 8.)

#함께해요 캡틴장

다 같이 신나게
즐거운 시간 보냅시데이



부산상의 제24대 조선의원 친선경기
(2022. 5. 24.)

운동은 같이 해야
제맛이제~



임직원 단합대회
(2022. 5. 26.)

경건한 마음으로
호국영령님들 뵈러 왔습니다.



충혼탑 참배
(2022. 6. 3.)

요즘 소통이 화두 아입니까,
소통 플랫폼 같이 한번
구축해볼까요? 시장님^^

시장님, 부산 경제 같이
잘 이끌어 나가보입니다^^



민관협치 경제발전 부산시장 초청 상공인
정책 간담회 (2022. 6. 16.)

OK!
한번 해보시죠



민관협치 경제발전 부산시장 초청 상공인
정책 간담회 (2022. 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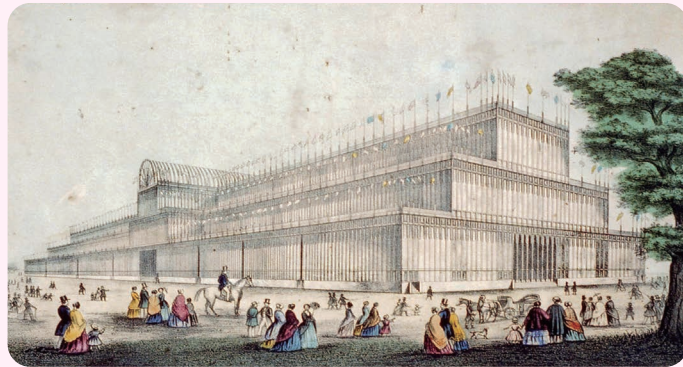
역대 주요 엑스포 탐구 생활

1851 영국 런던 엑스포



The Great Exhibition (위대한 전시회)

- 주제 Industry of all Nation (만국의 산업)
- 특징 세계 첫 박람회로 인정되었으며 철근과 유리로 만든 수정궁에서 개최되었다. 내연기관차, 증기기관차 등이 나타났고, 현재는 기술의 진보로 지하철, 고속열차 등으로 발전하였다.



1889 프랑스 파리 엑스포



Paris International (국제적인 파리)

- 주제 French Revolution (프랑스의 혁명)
- 특징 주제에 걸맞게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명분으로 개최하였다. 최초로 엑스포를 상징하는 기념물인 '에펠탑'을 건설하였다.



1970 일본 오사카 엑스포



Japan World Exposition (세계 일본 만국박람회)

- 주제 Progress and Harmony for Mankind (인류의 진보와 조화)
- 특징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한 사례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만물의 에너지,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의 탑'을 건설하였다.



202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



UAE Dubai Expo (2020 두바이엑스포)

- 주제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마음을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다)
- 특징 아랍권에서 개최된 최초의 엑스포이다.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의 힘을 보여주는 만큼 규모가 무제한이라는 점을 이용해 도시 전체를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했다.



2030 대한민국 부산 월드엑스포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 주제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 특징 부제로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을 설정하였으며, 부산에서 2030년에 월드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세계 12번째 등록 엑스포 개최 국가가 된다.

※ 사진출처: 부산광역시, BIE 공식홈페이지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기업 (주)효산개발

(주)효산개발과 (주)효산건설은 소방설비 회사인 효산엔지니어링이 2013년 8월 종합건설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업종을 변경해 설립한 회사로 '내 가족이 머물고 싶은 집'을 모토로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고 있다. 효산개발은 지역 중소형 건축의 강자로 꼽히며 최근 몇 년 사이 지역에 필요한 상업시설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효산개발은 시행을 효산건설은 시공을 각각 맡고 있다.



(주)효산개발 회사전경

경영방침

- 비전의 달성
- 긍정적 사고
- 수익원 창출

준비된 2세 경영인

(주)효산개발과 (주)효산건설의 박철우 대표는 2세 경영인으로 부친인 (주)대한이엔지 박대지 회장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유학을 통해 실력을 쌓아왔다. 부산 남구에 본사를 둔 대한이엔지는 국내 소방설비 업계의 삼성으로 불릴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는다. 박 대표는 대학 졸업 직후인 2013년 12월 효산개발과 효산건설 대표에 취임하였다. 젊은 나이지만 건축에 대한 열정과 한번 해보자는 추진력이 강했기에 지금까지 효산개발을 지속해서 성장시켜왔다.



(주)효산개발 박철우 대표



현장에서 안전 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모습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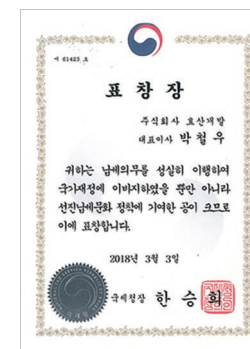
박철우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INSEAD-패밀리 비즈니스 스쿨 과정 교육을 받고 프랑스에서 수료하였다. 평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있다.

안전 우선 원칙을 중시하는 경영

효산개발과 효산건설은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INSEAD 패밀리 비즈니스 스쿨 과정 수료증



국세청에서 수여한 성실납세의무 표창장



국토부교토장관이 수여한 기계설비산업 발전 기여 표창장



남산동 효산 테라스파크

금정의 새 랜드마크 ‘효산 테라스파크’

박철우 대표는 평소 남산동이 부산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지역을 상징할 만한 상업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지속해서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금정구 남산동을 대표하는 상업시설이었던 남산프라자를 매입해 랜드마크 상업시설인 효산 테라스파크로 업그레이드하였다. 효산 테라스파크는 신축 상업시설로서 1층에 롯데슈퍼와 전자랜드, 올리브영,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함으로써 지역 내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박철우 대표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여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도 지속해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기본에 충실한 트렌드 반영을 위한 노력

효산개발 박철우 대표와 임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건설업의 스타일과 트렌드를 마냥 쫓아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효산 개발만의 정체성과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지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박철우 대표는 임직원들의 자기 개발이 곧 회사의 발돋움이자 결과물이기에 직원들의 자기 개발 동기부여를 위해 관련된 부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박대표는 항상 앞서가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발전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목표다.



동래 효산벨뷰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인

박철우 대표는 부친인 (주)대한이엔지 박대지 대표이사를 본받아 성공적인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수행해오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초복 맞이 1만 그릇 삼계탕 나눔 사업’ 후원 및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부산사랑의 열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박철우 대표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며 물려받은 ‘나눔 DNA’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쭉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너소사이어티가입

해외 진출을 위한 도약

최근 건축 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많은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충격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효산개발은 이 같은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밤낮없이 강구하고 있다. 효산

개발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주거지에 필요한 니즈를 파악하여 더 다양한 랜드마크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의 고급 맨션단지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집을 건설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더 나아가 해외 진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끊임 없는 도전과 새로운 변화로 고객 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주거 공간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우 대표가 올해 4월 12일 개최된 사랑의 열매의 나눔명문기업 공동가입식에 참석한 모습(왼쪽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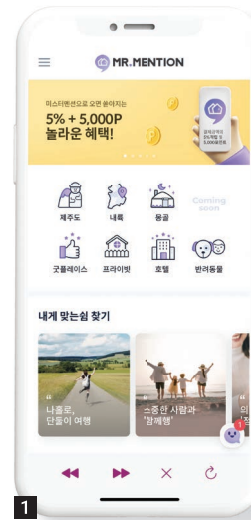
왼쪽 정재혁 공동대표, 오른쪽 정성준 대표

국내 최초 중장기 숙박 서비스 플랫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한 달 살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미스터멘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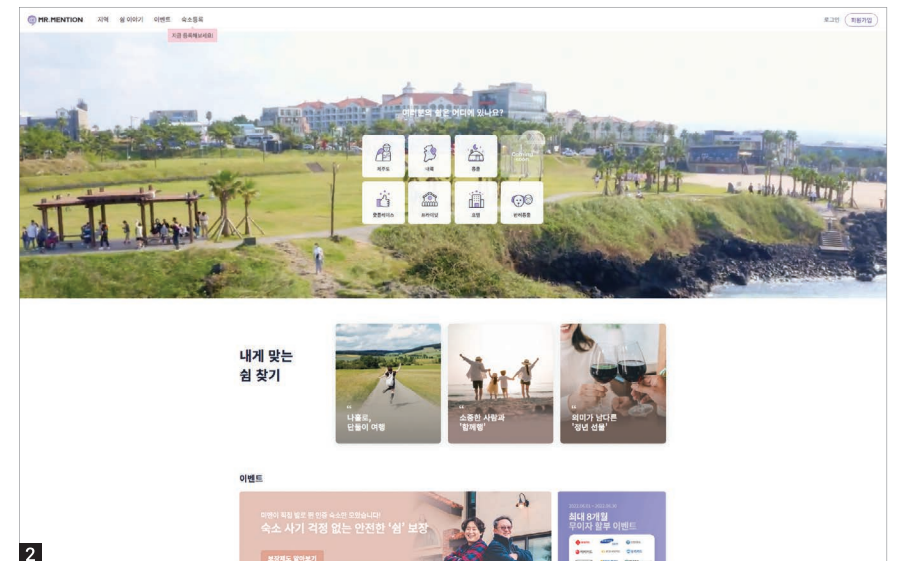


미스터멘션_서비스 이미지

(주)미스터멘션은 바쁜 현대인들이 ‘쉼’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미스터멘션은 2016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3,000개 이상 숙소와 장기 숙박을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하고 있다.



- 1_ 미스터멘션 앱
- 2_ 미스터멘션 홈페이지



앱 실력자, 선한 영향력에 눈뜨다

(주)미스터멘션 정성준 대표는 경성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경성대 공식 앱을 처음 만든 ‘앱 실력자’이기도 하다. 앱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의, ‘선한 영향력’에 눈을 떴다. 새벽에 누군가 앱 불편 사항을 올리면 곧바로 뛰어가서 고치고 나서야 잠을 잤는데, 잠들 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한다. 정성준 대표의 부모님이 펜션을 운영하였는데, 공실로 인해 펜션 운영을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정성준 대표가 홈페이지 네이버 키워드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자 공실이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아울러 잠시 출장 오는 사람들의 숙박 수요가 있는 걸 알고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했는데, 그랬더니 공실이 금방 사라졌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숙박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 한 달간 제주도 출장을 갔다가 ‘한 달 살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 달 숙박료가 100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래하고 있었다. 정성준 대표는 “그런데도 방을 구하는 사람, 방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전국의 펜션 및 숙박업소들의 공실을 줄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며 ‘미스터멘션’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제주도 여행법 '한 달 살기'

'놀멍, 쉬멍, 걸으멍'('놀며, 쉬며, 걸으며')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 말처럼 제주 여행길은 자연으로 들어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여행법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제주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보내는 시간은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와 리프레시 휴가까지 퍼지며 제주에서 일주일, 보름,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이른바 '장박'(장기 숙박)이 한국 사회의 새 트렌드로 떠올랐다. 국내 최초 장기 숙박 플랫폼인 미스터멘션이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2021년 미스터멘션 매출이 4배 이상 났 것이다. 홈페이지 누적 이용자는 300만여 명, 회원 수는 10만여 명, 작년 거래 금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 2016년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미스터멘션은 경쟁사가 단기 숙박 중개에 집중할 때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일주일 살기', '강원도 한 달 살기'와 같은 중장기 여행객을 위한 숙소를 늘려왔다.



1_ 미스터멘션 부산본사 사무실
2_ 미스터멘션 제주지사 사무실

중장기 숙박 시장 최초 '최저가-안전거래 보장제' 도입

미스터멘션은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100%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와 숙박비에 대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숙박비 전액 환불 및 1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안전거래 보장제'를 도입하였다. '최저가, 안전거래 보장제'는 중장기 숙박 시장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보상 서비스로, 중장기 숙박 O2O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스터멘션은 '최저가, 안전거래 보장제'를 통해 더욱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업체에서 일일이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볼 필요 없이, 손쉽게 최저가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미스터멘션에서는 고객의 안전 거래를 위해, 숙박비에 대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숙박비 100% 전액 환불과 더불어 최대 100만 원 보상이라는 '안전거래 보장제'를 도입했다. 타 플랫폼을 통한, 사기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숙박비를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3,4_ 미스터멘션에서 제공하는 숙소



부산본사 단체사진

대형 투자사와 업무 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미스터멘션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2016년 초기 기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콜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로부터 4억 원을 유치했다.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에도 선정돼 약 5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받았다. 미스터멘션은 지난 2019년 산업은행과 부산연합기술지주로부터 1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020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스타트업 보증 제도인 '퍼스트뱅크'에 선정되기도 했다. 퍼스트뱅크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 선정해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에는 케이브릿지인베스트, NICE 투자파트너스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다.



5_ 신용보증기금 퍼스트뱅크 선정
6_ 부산경제포럼 이달의 스타트업 선정

'전 세계 한 달 살기' 문화 정착을 위해

미스터멘션의 비전은 'Change your Lifestyle'이다. 이러한 비전과 함께 장기 숙소 연계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선사해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바쁜 현대 속에서 인생을 바꿀 한 달을 마주하게 된다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후에도 미스터멘션은 국내 외에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게 되도록 지속해서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Do you Know MZ?

MZ세대 문화 트렌드

인생네컷

M세대가 스티커 사진이면 Z세대는 인생네컷이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필수코스로 자리 잡은 놀이 문화가 함께 인생네컷을 찍는 것이다. 인생네컷은 과거 스티커 사진으로 널리 알려졌던 즉석 사진 인화기에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요소를 결합한 서비스이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친구를 만나면 어김없이 찍곤 했던 추억의 스티커 사진은 개성 있는 소품과 귀여운 필터로 많은 M세대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했었다. 핸드폰, 카메라 성능들이 향상 되면서 스티커 사진 문화가 사라지는 듯했으나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Z세대한테는 역으로 아날로그 감성 즉 레트로 감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인화지에 네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인생네컷이 새롭고 신기하고 SNS 공유를 통해 레트로 감성 표현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 할 거 없이 남녀노소 쉽고 재미있게 찍을 수 있다. 이번 여름 추억 한 장 남겨 보는 게 어떨까?



MZ세대의 셀카

사진을 찍으면 찍을 때 취하는 포즈가 있다. 김치, 브이, 주먹을 꽂 쥔 파이팅까지 예로부터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 자세였다. 요즘은 MZ세대 뿐만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유행하는 포즈들이 있다.

가루피스 여자 아이돌 '아이브'의 일본인 멤버인 레이가 유행시킨 포즈로 일본에서 소녀를 뜻하는 가루와 브이 포즈를 뜻하는 피스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팔을 쭉 뻗어 브이를 뒤집은 포즈이다.



혼이피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만화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짱구 친구인 혼이가 원장 선생님의 선글라스를 쓰고 딱밤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이 MZ세대들한테는 힙 하다고 인식이 생겨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즈이다. 팔을 쭉 뻗어 딱밤을 때리려고 엄지와 중지를 말아주듯이 포즈를 취하면 된다.

루피피스 어린이들의 단짝 '뽀롱뽀롱 뽀로로'에 뽀로로 친구로 나오는 루피의 사진 포즈이며 브이를 하여 머리 뒤쪽으로 올려주면 되는 포즈이다. 루피피스가 생기기 전부터 MZ세대에게 잔망 루피라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생겨난 포즈이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일상인 것들도 점점 변화가고 있다. 다음에 사진을 찍게 된다면 기존의 포즈가 아닌 유행하는 포즈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세는 하이볼!!!

MZ세대에게 위스키는 단순히 마시고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다. 일종의 취미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소비 행위에 개성과 신념을 담은 '가치소비'가 유행하고 홀로 편하게 술을 즐기려는 '혼술' 문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위스키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홈텐딩'(홈+바텐딩)이다. 수십 개 칵테일 레시피를 기반으로 요리하듯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마신다. 대표적으로 홈텐딩 칵테일은 하이볼이다. 하이볼은 위스키에 소다를 섞어 5-10도 정도로 도수를 낮춘 칵테일이다. 특별한 재료 없이 위스키와 소다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어 '워린이'(위스키 입문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생겨 나면서 MZ세대들은 위스키가 가진 향과 맛을 보다 잘 느끼기 위해 관련 지식 공부도 마다하지 않으며 마시고 난 빈 병은 수집품처럼 모으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취하기 위해서 마셨던 술, 이제는 맛을 알아보고 눈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





들어봤어?
MBTI 16가지 성격유형 검사

보통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상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혈액형이 무엇이나 물어보며 상대방의 유형이나 성격을 파악해왔다. 최근에는 'MBTI 16가지 성격유형 검사'가 혈액형별 특징을 알아보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유행 중 하나다.

MBTI 란? —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이며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MBTI는 시행이 쉽고 간편하여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최근 MZ세대들한테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MBTI의 4가지 선호 지표

<p>E 외향적 외부 세계에 관심의 초점을 둠</p> <p>S 감각형 일반적인 오관에 의존하고, 현재에 집중</p> <p>T 사고형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며, 분석적 판단</p> <p>J 판단형 빠르고 합리적이며 옳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성향</p>	<p>에너지방향 심리 에너지의 관심과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p> <p>인식 기능/정보수집 심리 에너지의 관심과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p> <p>판단 기능/결정, 선택 결정을 내릴 때 사고와 감정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p> <p>생활 양식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대처하는 방식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경향성</p>	<p>내향적 I 자신의 내면에 더 주의를 집중</p> <p>직관형 N 보이는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육감에 의존</p> <p>감정형 F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p> <p>인식형 P 상황에 맞게 활동하고 모험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음</p>
--	--	---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 앞서 봤던 선호지표 기준을 통해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알아보자.

ISTJ-소금형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	ISFJ-권력형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	ESTP-활동가형 친구, 운동, 음식 등 다양함을 선호	ESFP-사교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성격
ISTP-백과사전형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	ISFP-성인군자형 따뜻한 감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	ESTJ-사업가형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인 스타일	ESFJ-친선도모형 친절,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
INFJ-예언자형 사람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	INTJ-과학자형 전체를 조망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ENFP-스파크형 열정적으로 새 관계를 만드는 사람	ENTP-발명가형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
INFP-잔다르크형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INTP-아이디어형 비평적인 관점을 가진 뛰어난 전략가	ENFJ-연변능숙형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	ENTJ-지도자형 비전을 갖고 타인을 활력적으로 인도

이렇게 총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BTI 검사는 100%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비과학적인 이론 기반으로 비전문가가 만든 지표라고 한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나 최근에 유행처럼 보편화되면서 과몰입하여 맹신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유행인 만큼 혈액형처럼 재미를 위해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



DO YOU KNOW?

어느 유형이 가장 성격이 까칠할까?

- 1위-ESTJ
- 2위-ENTJ
- 3위-INTJ
- 4위-ISTJ
- 5위-INTP

누가 돈을 제일 잘 벌까?

- 1위-ENTJ
- 2위-ESTJ
- 3위-ENTP
- 4위-ESTP
- 5위-ISTJ

나의 MBTI를
무엇일까??



고객 경험 혁신으로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준비하라

고객 경험 Customer Experience의 시대

“우리는 파티의 호스트(Host)이고 고객은 파티에 초대된 손님이다. 고객 경험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We see our customers as invited guests to a party, and we are the hosts. It's our job every day to make every important aspect of the customer experience a little bit better.)”

‘아마존 되다(To be Amazoned: 지금 속해 있는 분야에 아마존이 진출하여 당신 사업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뜻)’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이야기한 말이다. 제프 베조스의 말뜻은 과거에는 기업이 차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월등하게 우수한

글_ 이승윤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건국대학교 교수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뛰어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총체적인 고객 경험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말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 과거 기업들이 ‘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AI, 블록체인, AR, VR과 같은 더 나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차별화의 중심에 두었다면,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은 급격하게 해당 기술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될 고객을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짜는 것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도,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싼 전체적인 고객 경험을 다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발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 고객들에게 ‘삼성 TV’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객이 삼성 TV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물건 판매 이후에도, 단순하게 AS를 잘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삼성의 다른 가전제품들과 TV가 연결되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TV가 업데이트되는 것까지 제품을 둘러싼 전체적인 고객 경험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최상의 경험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이테크 기술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 전략

돌아보면, 디지털 전환 시대, ‘전환(Transformation)’에 성공한 전통적인 비즈니스 기업들은 모두 다 기술이 아닌 고객 경험에 방점을 찍어 혁신을 만들어왔다. 점심 시간에 다수가 몰려 점심을 먹고, 함께 카페에 가는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스타벅스(Starbucks)가 점심 시간의 긴 줄을 줄이기 위해서 2014년에 만든 것이 바로, 언택트(Un-tact: 사람 간의 접촉 없는 일종의 무인서비스를

함축하는 단어) 개념의 ‘사이렌 오더’라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결국, 하이브리드 비콘 기술(블루투스과 고주파의 장점을 결합한 위치인식 장치)이라는 기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매장 내의 긴 줄’이란 좋지 않은 매장 경험을 없애주기 위해서, 일종의 모바일 오더 & 페이(Mobile Order & Pay) 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고객은 손안의 휴대폰 안에 있는 스타벅스 앱을 통해, 커피와 음식을 선택하고, GPS로 가장 근접한 매장을 선택하고 주문을 보낸다. 주문 승인, 음료 제조, 제조 완료 등의 순차적인 과정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와 같은 정보들이, 모바일을 통해 즉시 주문한 고객에게 전달되고, 매장에 도착하면 가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빈 좌석에 앉아서 즐겁게 함께 방문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신의 너네임이 불리고 주문한 음료를 받아서 즐기면 된다.

나이키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80년대, 90년대 나이키가 ‘저스트 두 잇(Just Do It)’이란 고객 경험을 멋진 운동화와 운동복을 만들어서 달성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나이키는,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이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혁신적인 러닝 경험을 끊임없이 운동하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용자가, 나이키 런 클럽을 실행하고 뛰면, 자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뛰었는지와 같은 정보가 끊임없이 이어폰을 통해 전달되어 진다. 전문 코치의 오디오 가이드를 선택하면, 혼자 뛰지만, 누군가와 같이 뛰는 경험을 누릴 수도 있다. 러닝이 마무리되면, 내가 그날 조강한 코스를 지도를 통해 보여주고, 평균 페이스와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태웠는지도 보여준다.

스타벅스와 나이키는, 여전히 커피와 운동화와 운동복을 파는 전통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지금의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들의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고객 경험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마존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외치는 이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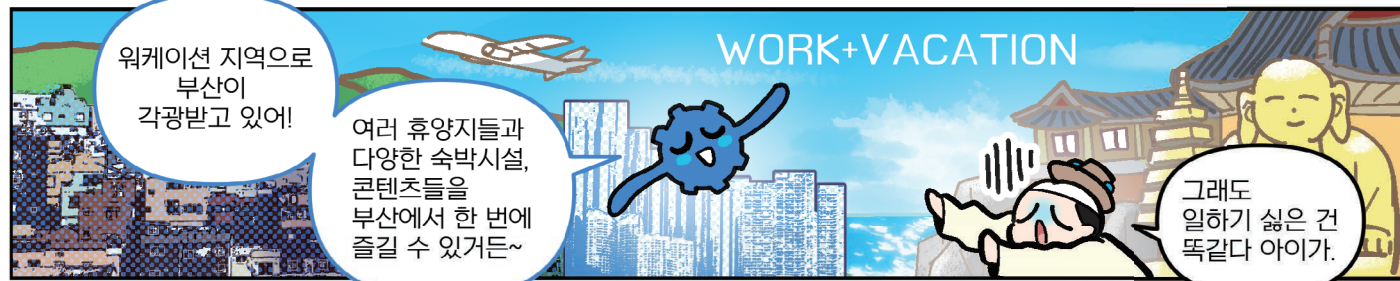
이 녀석 이름은 '보보'라고 해.
조선시대에서 보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으로 타임슬립을 했는지 뭐야?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일하게 된 보보가
잘 하고 있는지 어디 한 번 볼까?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워케이션' 도시, 부산!

글/그림 솔트빔



일과 휴가를 함께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뜬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워케이션이 기업과 직장인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한다.



워케이션의 유형

도심형	난 오늘 재택 근무 집, 회사 등 익숙한 장소에서 벗어나 도심 호텔에서 업무와 휴식을 취하는 형태
휴양형	산으로 출근·바다로 퇴근 퇴근 후 바다, 산으로 여행,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하는 지역 체류형 근무
농촌전통 체험형	농촌힐링워크, 농촌에서 힐링하며 일한다. 농가, 한옥, 독채처럼 인적이 드문 숙소에서 힐링하며 업무를 하는 비대면형 근무

(※자료: 한국관광공사)

워케이션 왜 뜰까??

- ①—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가지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②— 새로운 환경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휴가지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일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③—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확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휴가지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워케이션 하기 좋은 지역은?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기반 신규 관광 트렌드 및 사업발굴 - 워케이션 후보지 발굴과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워케이션을 하기 좋은 지역은 우수한 숙소들이 많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자연 친화적이며, 감성적인 레저들을 즐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통적 특성을 갖추고 워케이션 선호도가 높은 장소로는 다수의 도시가 있으며, 그중 제주, 부산, 경주, 여수 등이 대표적인 도시다. 향후 지속적인 워케이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워케이션을 통한 근무 제도의 발전이 기대된다.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민선8기 부산광역시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정책비전: 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

3대 핵심정책

01 시민행복 15분 도시

걸으면서 행복한 15분 생활권

- 15분 생활행복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
- 15분 도시 62개 생활권별 사업확산
- 데이터 기반 생활 서비스 진단 체계 구축
- 차 없는 거리 확대

즐기면서 행복한 15분 라이프스타일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300개 조성
- 생활권 연결 ‘그린 카펫(선형공원)’ 조성
- 갈매 ‘셋’길 조성
- 권역별 15분내 생활체육 시설 조성

따뜻해서 행복한 15분 공동체

-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기 ‘HAHA’ 센터 생활권별 조성
- 공유 플랫폼 ‘제3의 공간’ 조성 및 운영
- 15분 시민생활 공동체 플랫폼 구축
- ‘생활권 연계 골목상권 부활 프로젝트’ 추진

02 글로벌 허브도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 도시 조성

- KDB산업은행 등 부산 이전 추진
- 금융공기업 정책자금 부·울·경 대폭지원
- 금융산업분야 디지털로 혁신 선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

- 퐁피두 센터 등 세계적 미술관 유치 및 건립
- 세계 최고의 영화제 도시 부산 조성
- 글로벌 IP 기반의 나이트 사파리 조성

UN해비타트 협력 세계 최초 해상도시 조성

- 미래 해상도시 입지 분석 및 마스터 플랜 수립
- 미래 해상도시 관련 인·허가 행정지원 체계 마련
- 미래 해상도시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이전)

친환경 첨단 글로벌 수소항만 조성

- 동남권 수소항만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실증
- 항만 모빌리티 수소기반 전환 확대
- 수소선박기술센터 구축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선박 개발 실증

영어상용도시 기반 조성

- 영어 교육 글로벌지산학 협력 시스템 구축
- 중장년층 영어 전문인력 발굴 및 봉사·일자리 연계 사업 추진
- 부산시 공공기관 영어 역량 강화

03 아시아 창업도시

부산창업청 신설

- 아시아 창업중심도시 사업 추진
- 성장주거별 체계적인 지원, 관리
- 부·울·경 종합 창업 성장 지원 협력 체계 구축
- 전략적 스타트업 집중 육성

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

- 아시아혁신 스타트업 창업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 부산지역 유학생의 창업 관련 활동 적극 지원
- 아시아 유망 기업 전용 창업펀드 조성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

- 공공주도 부산형 투자생태계 구축
- 부산형 모태펀드 1조+a 조성
- 글로벌 대표 VC/AC와 협력체계 구축
- 부울경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01



인프라 혁신도시

-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
- 해운대 53사단 부지 이전
- 도심 내 저활용시설 창업혁신 공간으로 활용
- 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02



디지털 전환도시

- 메타버스 기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팩토리 전환지원 센터 설립
- 디지털상품권 기반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조성
- 글로벌 메타 경제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03



지산학 인재도시

- 대학생 현장 연수 지원 제도 확대
- 규제 특구 분야 전문 인력 오픈 캠퍼스 운영

04



충충한 복지도시

- 아동 응급병원 및 시립 아동병원 설립
- 장애인 진료 전용창구 지원
- 50+복합 지원센터 건립

05



안전한 안심도시

- 찾아가는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 고독감·외로움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화

06



생활체육 천국도시

- 시민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 스포츠산업 육성

07



깨끗한 환경도시

-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선도
- 탄소중립대학원 등 설치·운영
- 부산지역 환경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 낙동강 분류 의존도 줄이고 경남의 깨끗한 원수 공급 추진

08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 세계최고의 영화제 도시 부산 조성
- 세계적 미술관 유치 건립
- 글로벌 IP기반의 랜드마크 조성
- 반려동물 종합병원 및 수의전문대학 설립

09



스마트 교통도시

- 광역교통 환승 요금제 도입
- 서부산권 연결도로망 확충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남북간, 동서간 대심도 건설

10



따뜻한 신뢰도시

-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 은행(V-Bank) 설립
- 중장년·노인 평생학습 시스템 대폭 확대 및 강화
- 아파트 공동체 운동 활성화 사업 지원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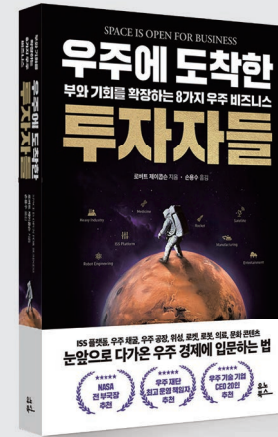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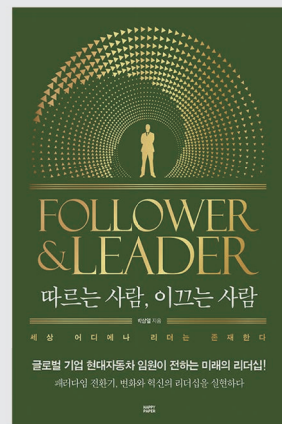


01 **변화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 | 한빛비즈 | 38,000원

이 책은 <원칙>으로 전 세계의 사랑은 물론, 국내 독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레이 달리오의 새로운 책으로, 지난 500년간 주요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패턴을 파악해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레이 달리오의 인사이트로 점철된 그만의 원칙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사이클의 단계별 특징과 단계별로 필요한 통치자, 쇠퇴하는 단계로 가는 시기를 늦추거나 완만하게 넘어갈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은 정점을 지나 쇠퇴로 가고 있는 전 세계의 갈등 상황, 특히 미국 내에서의 큰 정치적, 사회적 갈등도 다루고 있으며, 기존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새로운 세계 강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도 포함하고 있다.

02 **따르는 사람 이끄는 사람**
박삼열 | 해피페이퍼 | 17,000원

이 책은 약 7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박삼열 상무가 지난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책으로, 사내외를 망라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쌓은 리더십 노하우,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충족할 방법을 집대성했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뉜다. 1부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심에 선 한국 사회의 현실과 그 속에서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룬다. 2부는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부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스킬을 실제 경험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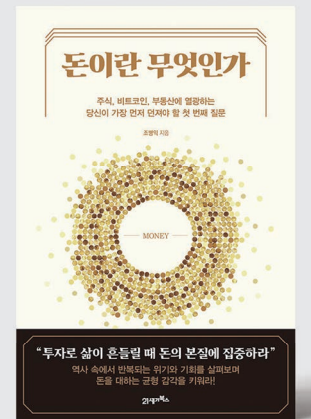


03 **우주에 도착한 투자자들**
로버트 제이콥슨 | 유노북스 | 21,000원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인류의 경제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었다. 이 책은 지구의 모든 경제적 기준이 우주로 넓어진 현재, 우주에서 비즈니스로 일어날 1,000조 달러의 경제를 이야기한다. 예로 소행성에 포함된 희토류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주의 미소 중력 환경에서 제조 및 의료 실험을 하는 것이 왜 비용 효율적인지 등을 설명한다. 우주 비즈니스의 8가지 우주 산업과 기술을 소개하고, 우주로의 경제 확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현재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안내한다. 눈앞으로 다가온 우주 경제를 맞이하는 투자자들, 우주 경제에 대한 지식을 기르고 싶은 독자에게 우주 산업의 역사와 현황, 전망, 우주 비즈니스의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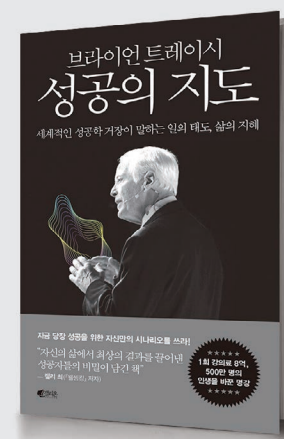
04 **돈이란 무엇인가**
조병익 | 21세기북스 | 19,500원

한국은행 금융전문가인 저자는 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네 개의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는 ‘돈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속성에 관한 질문’이며, 세 번째는 ‘삶 속에서 돈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마지막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돈에 관한 질문’이다. 까다로운 돈의 이야기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돈을 ‘어린아이’에 비유해 양육방식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돈의 양면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지도 중요하다. 돈 때문에 삶이 흔들 때 가장 먼저 허황된 믿음을 내려놓고, 돈의 행동 양식과 존재 양식에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돈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돈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다.



05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의 지도**
브라이언 트레이시 | 갤리온 | 16,500원

이 책은 접시뒀이에서 시작해 연 매출 수천만 달러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일구어낸 세계적인 성공학의 거장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40년 자기 단련 강의의 핵심 콘텐츠를 담고 있다. 저자 자신의 인생 역전, 그리고 수백만 명에게 가르치고 그들 또한 백만 장자로 만들어낸 원칙을 토대로 삼는다. 이 책의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업무, 인간관계, 시간 관리 등 우리의 일상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일과 삶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칙이다. 인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단 한 번만 주어지고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 원칙에 따라 인생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미션을 최상의 결과로 완수해보자.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 총원우회

제7회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 총원우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 총원우회(회장 이오선)는 제7회 글로벌경제인 총원우회장배 골프대회를 지난 5월 31일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대회는 글로벌경제인 과정 원우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자 마련되었으며, 1기부터 11기까지 140여 명의 원우 및 내빈이 참여하여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과정은 2011년 창립하여 올해 11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최고의 CEO 양성과정이다.



대선주조(주)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 헌액

대선주조(주)(대표 조우현)는 부산진구 적십자회관에서 ‘레드 크로스 아너스클럽(RCHC)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가졌다고 6월 1일 밝혔다. 대선주조는 이미 지난 3월 2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5년간 총 1억 원을 후원 약정하였으며 레드크로스아너스기업 부산 18호, 전국 법인 167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조우현 대표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손을 잡고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주)동성모터스

부산 금정 통합센터 오픈

BMW 그룹 코리아 공식 딜러 동성모터스(대표이사 석상우)가 BMW 및 MINI 금정 통합센터를 새롭게 오픈하였다고 6월 3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금정 통합센터는 지상 6층 건물에 BMW 및 MINI의 신차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함께 자리 잡았다. 서비스센터에는 7개의 워크베이가 준비돼 BMW와 MINI 차량 모두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예약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세정나눔재단

‘저소득층 행복가득 지붕만들기’ 지원



세정나눔재단(이사장 박순호)은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안종일)과 6월 10일 세정그룹 본사에서 ‘저소득층 행복가득 지붕만들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세정나눔재단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8,000만 원을 지원해 70가구가 지붕을 교체·개량했으며 올해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박순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주)골든블루

부산지구 청년회의소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주)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가 부산지구 청년회의소(이하 부산지구 JC)와 6월 11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주)골든블루와 부산지구JC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다. (주)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은 “(주)골든블루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산지구J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람이 행복한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BNK부산은행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 전달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6월 13일 오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부산은행은 지역 유공자와 보훈가족 50가구에 총 1,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6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효성전기(주)

‘쓰쓰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효성전기(주)(대표 정진근)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의 ‘쓰쓰이가 바른기업’ 정기후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효성전기는 임직원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마련한 기금으로 쓰쓰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정진근 대표는 “임직원 모두의 뜻이 담긴 기부금인 만큼 좋은 일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주)

7월 일본·동남아 등 국제선 8개 노선 추가 운항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이 7월 일본, 동남아 위주로 국제선 8개 노선을 추가 운항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7월 1일 부산-울란바토르, 오사카 노선 ▲7월 13일 부산-코타키나발루 ▲7월 14일 부산-나트랑, 인천-다낭 ▲7월 15일 부산-세부 ▲7월 22일 인천-후쿠오카 ▲7월 26일 부산-삿포로 노선 등 8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7월 말까지 총 17개의 국제선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자동차의 날’ 르노코리아 최성규 R&D 본부장, 산업부장관 표창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제19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차량 내 간편 결제 시스템 ‘인카페이먼트(In Car Payment)’를 개발한 최성규 본부장이 산업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6월 15일 밝혔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CMA 플랫폼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신차를 오는 2024년 출시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연구진은 부품 국산화율 60%를 목표로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 부산 58호 ‘그린노블클럽’ 가입



동아플레이팅은 이오선 대표이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였다고 6월 15일 밝혔다. 이오선 대표는 부산 58호, 전국 339호 회원이 되었으며 2014년부터 어린이 재단 후원자가 되어 결연사업을 통해 국내 아동을 후원해 왔다. 이오선 대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대선조선(주)

특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인도·명명식 개최



부산의 대표적인 중견 조선소인 대선조선(대표이사 이수근)이 6월 21일 특수 화학제품 운반 전문 회사 성호해운으로부터 21년 3월 수주한 6,800톤급 특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에 대한 인도·명명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된 두 척의 선박은 각각 ‘SH VENUS’, ‘SH OLIVIA’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를 넘어 최대 중동까지 확장하여 베이스 오일, 팜유 등 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할 계획이다.

부산상공회의소

베누 스리니바산 TVS 모터스 회장 초청 만찬



부산상공회의소는 6월 22일(수) 부산 롯데호텔에서 인도 TVS모터스 스리니바산 회장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인화 회장과 스리니바산 회장은 향후 부산과 인도 기업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장인화 회장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위해서도 협력을 당부하자, 스리니바산 회장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지지 의사를 밝혔다. TVS모터스는 인도 3대 이륜차 제조기업이며, 스리니바산 회장은 한국 문화외교 친선대사이자, 명예 부산 시민이다.

슬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7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2022년도 개정법률에 맞는
인사규정 만들기&근로감독 대응

일 시 2022. 7. 8.(금) 09:30~17:30
장 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가고 대표)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 노동법의 해석원리,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등) 작성 시 유의사항
- 취업규칙 개념 및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근로시간 산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관계,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정 방법
- 표준 취업규칙 해설
- 2022-23년 근로감독 점검 주요 방향 등

중소기업 세무 시리즈 1탄

중소기업에서 꼭 지켜야 할 정관 및 규정정비 실무

일 시 2022. 7. 13.(수) 09:00~13:00
장 소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
강 사 김창영 세무사(세무법인 동양)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내 용

- 정관의 의의, 정관설계의 조문별 진단 및 확정
- 정관의 승인과 상법절차 실무, 정관의 사후관리
- 임원보수의 법적성격 및 법적근거
- 세무상 임원의 범위와 실무상 유의사항
- 임원보수·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및 승인과 상법절차 실무
- 임원퇴직금의 법적근거 및 손금산입 요건 등

중소기업 세무 시리즈 2탄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절세 설계 및 전략 핵심

일 시 2022. 7. 13.(수) 14:00~18:00
장 소 부산상의 2층 중회의실
강 사 김창영 세무사(세무법인 동양)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내 용

- 임원의 범위 및 탈세시 불이익
- 기업이익의 절세 설계시 알아야 할 법령의 변화내용 이해
- 주주총회 절차 및 정관변경과 상법절차
- 기업이익과 소득유형 설계의 의미
- 초과배당(차등배당), 조세문제
- 임원보수 지급에 관한 교육 등

하루만에 끝내는
수출입 세무회계

일 시 2022. 7. 20.(수) 09:30~17:30
장 소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김겸순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위드)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범위와 영세율신고 증빙서류
- 무역서류 이해
- 수출입신고서상 부호의 의미와 세무회계처리
- 분개처리(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 외화자산·부채의 분개시점과 기말평가
-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기술인재 일자리 매칭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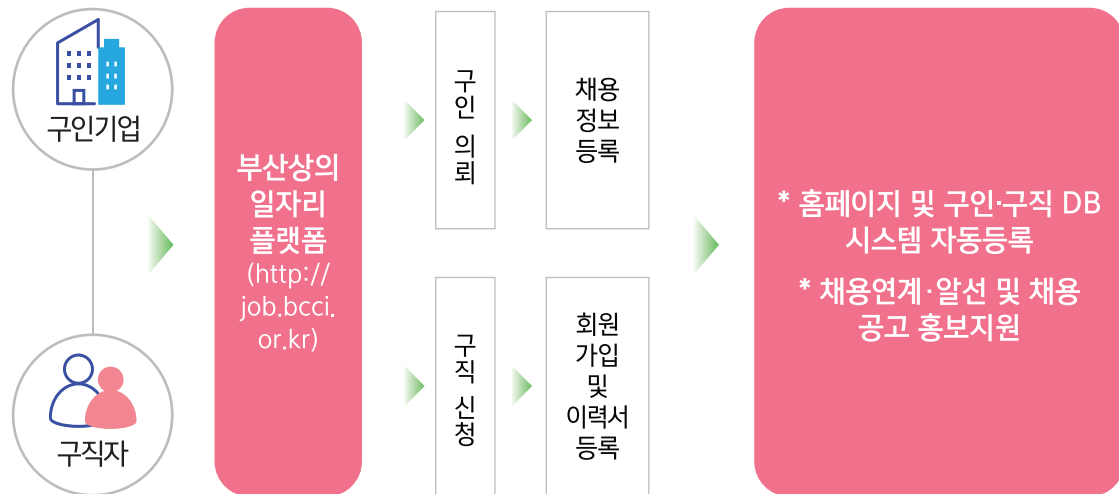


사업기간 2021. 12. ~ (별도 종료 안내 시 까지)

지원내용 직업교육 전문기관 기술 교육 수료 인재 POOL을 통한 JOB 매칭

- ▶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미래직업전문학교, 새동아직업전문학교,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부산기장직업학교, 센텀직업전문학교, 효성직업전문학교, 양산직업학교 등 9개 직업교육기관과 전문인력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신청방법 일자리플랫폼 URL: <http://job.bcci.or.kr>



대한민국 첫번째 월드엑스포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뛰겠습니다!

2023년 12월 개최도시 결정

기본에 충실하여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Times change, but values endure

효산개발은 해외 진출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변화로
고객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주거공간의 가치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항상 기업으로서 사회적 발전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